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2. 20.(수) 14:00 배포 2023. 12. 20.(수)

홍해 항로·파나마 운하 해상물류 차질 상황 점검

- 제2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 개최, 현재까지 우리 수출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 수출물품 선적 정상 가동중, 미국·유럽 현지공장 상황 등 지속 모니터링

산업통상자원부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12.20.(수) 14시, 홍해 해협 內 예멘 반군의 화물 선박 공격, 가뭄에 따른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 등 글로벌 해상물류 차질과 관련하여 동향 및 수출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 T/F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반장) / 무역협회, 코트라, 무보 등 관련 임원(반원)

점검회의 결과, 현재까지 홍해 해협, 파나마 운하의 해상물류 차질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의 유럽·북미향 수출품 선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글로벌 선사들은 홍해 해협, 파나마 운하를 우회*하는 대체 항로로 전환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 홍해 해협(수에즈 운하) → (대체) 아프리카 남단 우회
파나마 운하 → (대체) ①美 서부 하역 후 철도·트럭 활용한 내륙 운송, ②수에즈 또는 희망봉 우회

한편, 미국, 유럽에 위치한 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 공장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부품 등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해상물류 차질 장기화, 우회 항로 전환 등에 따라 수출 물품의 인도 지연, 운임비 상승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파나마 운하의 가뭄 지속, 홍해 항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면서 해상물류 지연, 운임비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코트라, 무역협회 등과 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출기업에 신속한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사업 등을 통한 지원방안과 더불어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강구해 나감으로써 최근의 양호한 수출 흐름세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상용	(044-203-4020)
		담당자	사무관	홍경태	(044-203-40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 개요

1 추진배경

□ 홍해 해협 內 **예멘반군**의 **화물선 공격, 파나마 운하 가뭄** 등에 따른 **글로벌 해상물류 차질** 관련 **동향 점검**

□ **해상물류 적체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 및 **대응방향** 등 논의

< 참고 : 운하별 통항 선박수, 물동량 비중 (KOTRA, 무역협회) >

구분	홍해 해협(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통항 선박수('22)	약 2.3만대	약 1.4만대
글로벌 해상물동량 內 비중	약 12%	약 3%

2 회의개요

□ (일시·장소) **'23. 12. 20(수), 오후 2시, 무역협회**(48층 키타브릿지 회의실)

* ZOOM 화상회의 병행

□ (참석자) (정부) **무역투자실장(주재),** 자동차과, 배터리전기전자과
(기관) 코트라,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 **세부일정 계획**(안) ※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3	(03')	▸ 모두발언	무역투자실장
14:03~14:38	(35')	▸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발표순서) 코트라 → 무역협회 → 무역보험공사	참석자
14:38~14:40	(02')	▸ 마무리 발언	무역투자실장